

# 권오봉 여수시장, 여행업 관계자와 사랑방 좌담회 개최

### 어려움 겪는 여행사업자 애로사항 극복방안 논의

### 여수관광 국제화 이뤘 마이뉴스 산업 육성해 나가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경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시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여행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여행업계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장과 전라남도 관광협회 여수지부 회원 11명이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지역 여행사를 대표

해 참석한 회원들이 업계 현황 소개와 건의 및 제안을 하면 권 시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권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힘든 업종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행업이다”면서 “늦었지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김영호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장은 “먼저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여수 여행에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순진 소라관광 대표가 “코로나19로 일이 끊기면서 임대료가 큰 부담이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협조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현재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다”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호준 투어존 대표는 “지역에 있는 숙박과 식당, 관광시설 등이 관광객 활인 시 관내보다 관외 업체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수시와 여행업체, 관광업체가 MOU를 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관광객 모객 규모 때문에 할인율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지역 여행업체를 장려하기 위해 관광업체와 할인율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성열 여수한국관광 대표는 “여수 관광상품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여수관광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좋은 의견이고,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권 시장에게 ‘시티투어 축소 운영’, ‘기차역 관광버스 정차 시간 연장’, ‘바가지요금 근절’, ‘여수관광 심포지엄 개최와 관광동향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면서 “특히 바가지요금은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와 숙박 앱 ‘여수야’, 물가정보



공시 앱 ‘여수야’ 등을 활용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OP28 유치와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여수관광의

국제화를 이루고,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서 찾아오는 관광이 아닌 만들어가는 관광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성윤기자

## 순천시니어클럽 ‘순천손질멸치’, (주)순천로컬푸드 입점

### 핵가족·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구매 욕구 충족

순천시니어클럽의 ‘순천손질멸치’가 (주)순천로컬푸드에 입점되었다.

그동안 순천시니어클럽 공동판매장인 품앗공간(순천시 저전길 4)에서만 판매하던 제품을 (주)순천로컬푸드 호수공원점과 국가정원점에 입점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천손질멸치는 허석 순천시장이 취임하며 경로당 방문 중 어르신들이 무료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멸치 통이라도 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

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간편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납해안 청정지역에서 들 어온 멸치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위생 포장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노년층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니어클럽 유관식 관장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판로를 확

대하고, 순천손질멸치를 찾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광양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선정

광양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선정돼 국비 14억3천9백만 원을 확보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단열저하, 결로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양시는 국

비 14억3천9백만 원을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고성능단열 ▲창호교체 ▲설비 공사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김미란 교육보육과장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인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과 어린이 보육환경이 최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고흥군, 군의회 군공항 이전 후보지 즉각 철회

### “고흥 미래 죽이는 행위 간주...강력히 반대한다”

고흥군과 군의회(의장 송영현)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고흥군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고흥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흥만 간척지는 고흥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가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 벨리,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드론특

화 산업단지 추진 중에 있다.

고흥만 간척지 바로 옆에는 고흥지역 최초의 리조트와 대규모 관광단지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흥만 간척지 일대는 고흥의 비전을 견인하고 고흥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역이다.

군공항이 들어서면 현재 진행 중인 고흥만 간척지 주요사업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고흥의 미래가 없어지고, 510만평의 대규모 농경지가 일시에 사라져 농민들의 삶의 터전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날벼락 같은 군공항 고흥 이전 검토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

또한 느닷없이 군공항 유력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은 고흥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후보지로 고

흥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군은 고흥지역 모든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6만 5천 군민과 전국의 70만 고흥출신 향우가 총 쫓기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계획이다.

송귀근 군수는 “정정고흥에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 군민과 함께 총력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보성군, 톨백저울 교정 작업 실시

보성군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톨백저울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교정 대상은 개인,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톨백저울 250여대이며, 권역별로 장소를 지정해 중량점검 및 교정작업이 진행된다. 교정비용은 군비로 전액 지원된다.

이번 톨백저울 교정작업은 2016년부터 톨백 매입이 도입되면서 마을 및

농가보유 톨백저울의 실중량(영점) 차이로 중량 가감에 따른 농가의 불편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성군은 전문업체와 연계해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저울 교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수매현장 여건개선 등 농가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